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6주만에 크게 늘어... 계속 신청자는 감소... 노동 시장이 가장 둔화 속도 느린 부문
- Bloomberg: 미 생산성 예상보다 낮아... 노동 비용 상승 탓
- U.S. News: 3월 들어 미 무역 적자 크게 줄어... 수출 증대 효과
- Bloomberg: 연준과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특징은?
- WSJ Real Time Economics: 백악관 부채 한도 문제 대안 검토 - 버핏은 오일에 크게 배팅한다 - 중국의 외국기업 통제로 투자 타격 우려 등
- Bloomberg: 자신 매니저 Gundlach, "현재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 CNN Business: 백악관 AI 대응 방안 밝히다

[미국 금융과 은행 사태]

- CNN Business: 미국인 절반, 은행 예금에 두려움 있다
- CNN Business: 은행 PacWest, 주식 50% 이상 하락 '모든 선택 검토' 밝혀
- Bloomberg: "국채 수익률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중국 경제와 에너지]

- Bloomberg: 엄청난 양의 오일이 중국으로 들어간다
- Bloomberg: 국제에너지 기구 "올해 중국 가스 수요는 급등, 유럽은 퇴보"

[미국 생활]

- WSJ: 자동차 보험료, 다시 오르고 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요식업 기업들, 알뜰한 소비자를 타겟... 인플레이 지속 때문
- Bloomberg: IBM의 CEO "원격 근무자 승진에 어려움 있다"
- Bloomberg: 많은 기업들, 유급 육아휴직 제공한다
- WSJ: Qualcomm, "당장 스마트폰 수요 회복 힘들듯"
- CNN Business: MS "Bing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한다"
- WSJ: Nordstrom, 샌프란시스코 매장들 폐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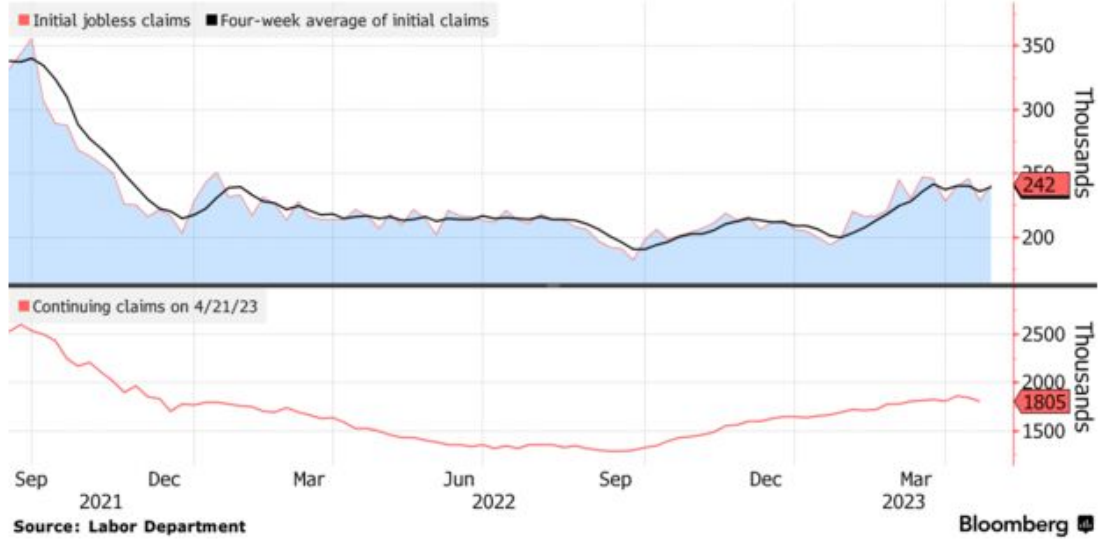
Bloomberg: US Jobless Claims Rise Most in Six Weeks, Continuing Claims Fall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6주만에 크게 늘어... 계속 신청자는 감소... 노동 시장이 가장 둔화 속도 느린 부문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6주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 지속해서 신청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다.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탄력적이긴 하지만 일부 둔화하는 상황이다.
- 연방 노동부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4월 29일 끝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3천건 늘어난 24만 2천건.

- 한주 이상 지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는 청구 건수는 3만8천건이 떨어진 1백 81만 건이다.
-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동 시장이 다소 둔화되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일련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다른 경제지표들 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US Jobless Claims Rise by Most in Six Weeks
Meantime, recurring applications fell by most since Ju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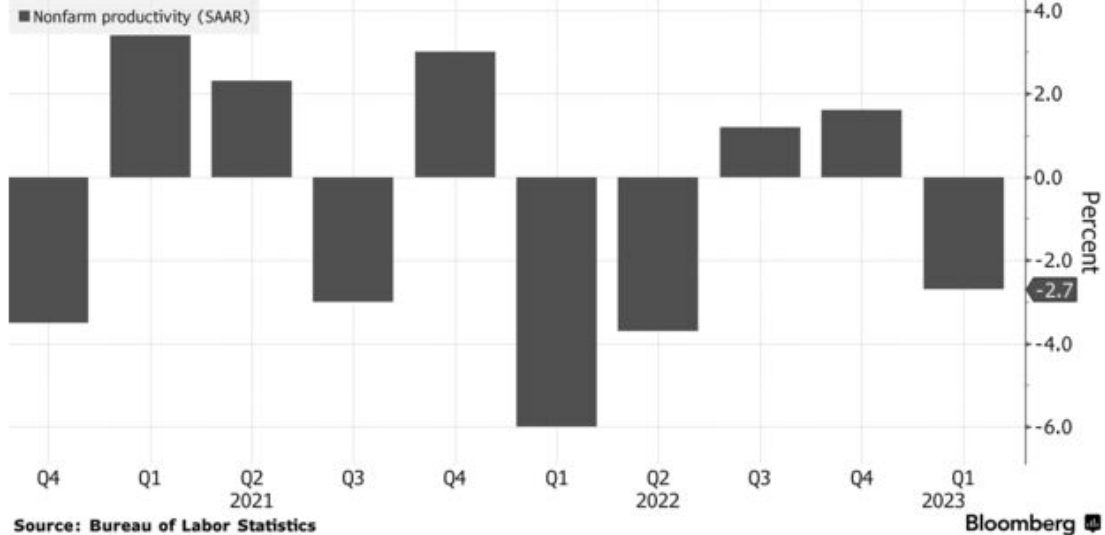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roductivity Declines More Than Forecast, Labor Costs Climb

미 생산성 예상보다 낮아... 노동 비용 상승

- 올해 1분기 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았다. 인건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연방 노동부 오늘 수요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농가 생산성이 연간 비율로 2.7%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노동 비용은 지난 4분기에 비해 2배나 늘어난 6.3%로 가속화됐다.

Productivity Slumps US productivity fell in the first quarter as unit labor costs accelerated



Bloomberg 기사

U.S. News: US Trade Deficit Narrows Sharply in March as Exports Rise 3월 들어 미 무역 적자 크게 줄어... 수출 증대 효과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3월에 무역 적자가 9.1% 줄어든 6백42억달러.
- 구체적으로 수출은 2.1% 상승한 2천5백62억달러로 이중 상품 수출은 3.1% 커져 1천7백43억불이며 원유 수출은 25억불 늘었다.
- 자동차, 부품, 엔진 수출도 늘었다. 서비스 수출도 1억 늘어난 8백18억불로 나타났는데 여행과 운송이 이를 주도했다.
- 수입은 0.3% 줄어든 3천2백4억달러로, 구체적으로 상품 수입은 05% 감소한 2천6백9억불이었다. 3월 수입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가 나타나면서 기업 투자가 둔화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U.S. News 기사

Bloomberg: Here's What We Learned From Fed Rate Decision and Powell's Remarks 연준과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특징은?

- 최근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 기조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모든 참석 관리들이 하나같이 0.25% 인상을 지지
-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신용 여건 데이터가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 표명했음. 고용 시장 여전히 타이트하고, 은행의 대출 감소가 경기 냉각에 주는 여파도 판단하기에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함. 연준의 대차대조표 계속 축소 입장

- 파월의 기자회견 질문에 답하면서 연중이 중간 크기의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연방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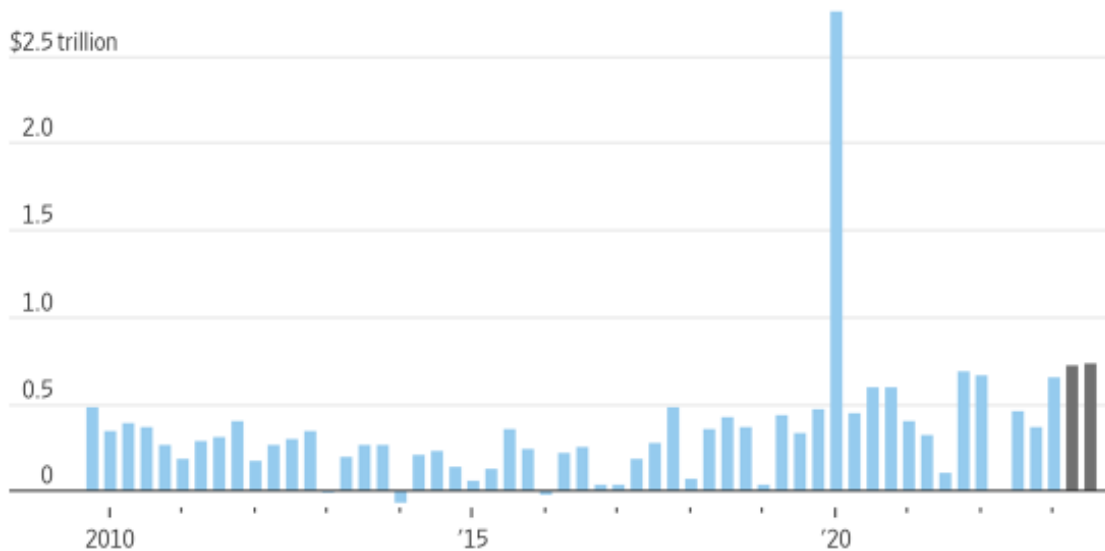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백악관 부채 한도 문제 대안 검토 - 버핏은 오일에 크게 배팅한다 - 중국의 외국기업 통제로 투자 타격 우려 등

[백악관, 부채 한도 문제 대안 검토]

- 양당이 참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 지출 삭감 필요 강력 주장하고 민주당의 조건 없는 부채 상도 상향 조정입장이다. 기간의 빠르면 6월 1일로 빠르게 향하고 있다.
- 이와중에 백악관은 부채 한도의 '일시적인 증가' 등이 대안을 검토중이다.

U.S. Treasury marketable borrowing, quarterly



Note: April-June and July-September 2023 periods are estimates

Source: U.S. Treasury

[버핏은 오일에 크게 배팅한다]

- 얼마전까지만해도 버핏은 오일 주식에 손을 댄 것 처 보였다. 2008년에 석유 회사로 큰 손실을, 그리고 2014년 또다른 오일 투자에서 손을 뗐다.
- 그런데 작년에 3백90억불을 투자했다.

Percentage change since July 3,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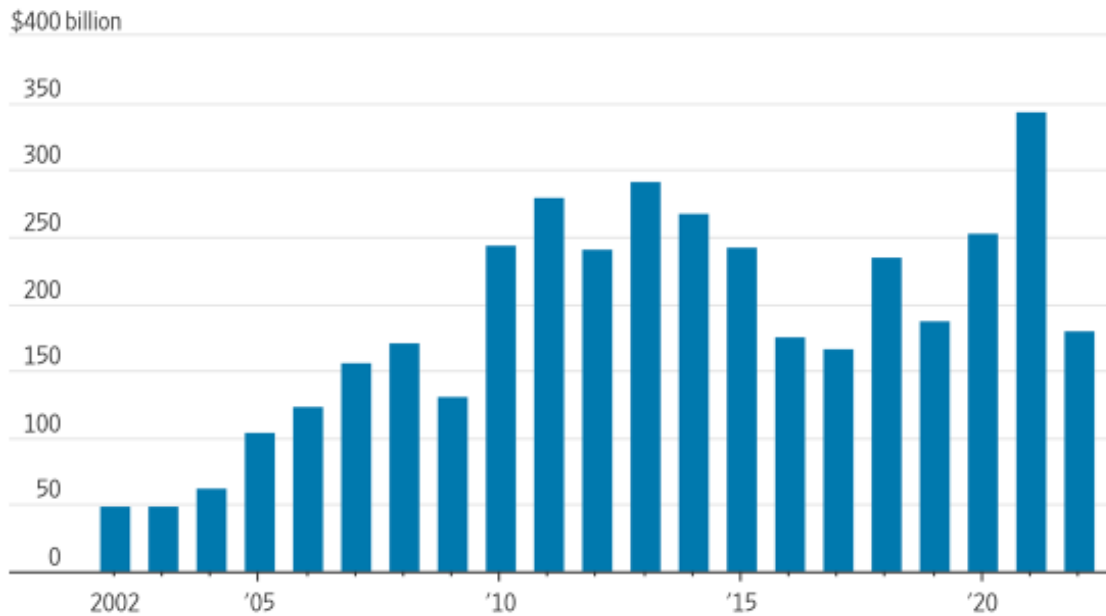
As of April 28

*U.S. crude oil hit \$145 a barrel. Prices then collapsed.
Source: FactSet

[중국의 외국기업 통제로 투자 타격 우려]

- 중국의 외국 기업 투자에 대한 압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나 줄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FDI inflows to China in U.S.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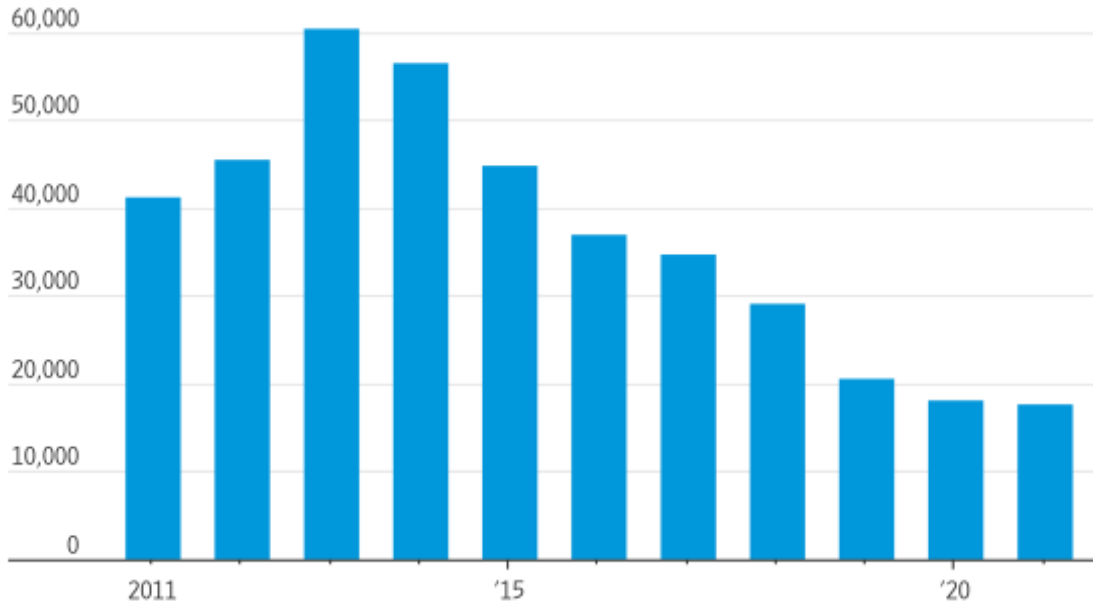


Source: China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via CEIC

[중국의 투자 감소, 삼성전자가 대표적]

- 여전히 중국내에서 중요한 메모리 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수면에서 점점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Samsung's number of employees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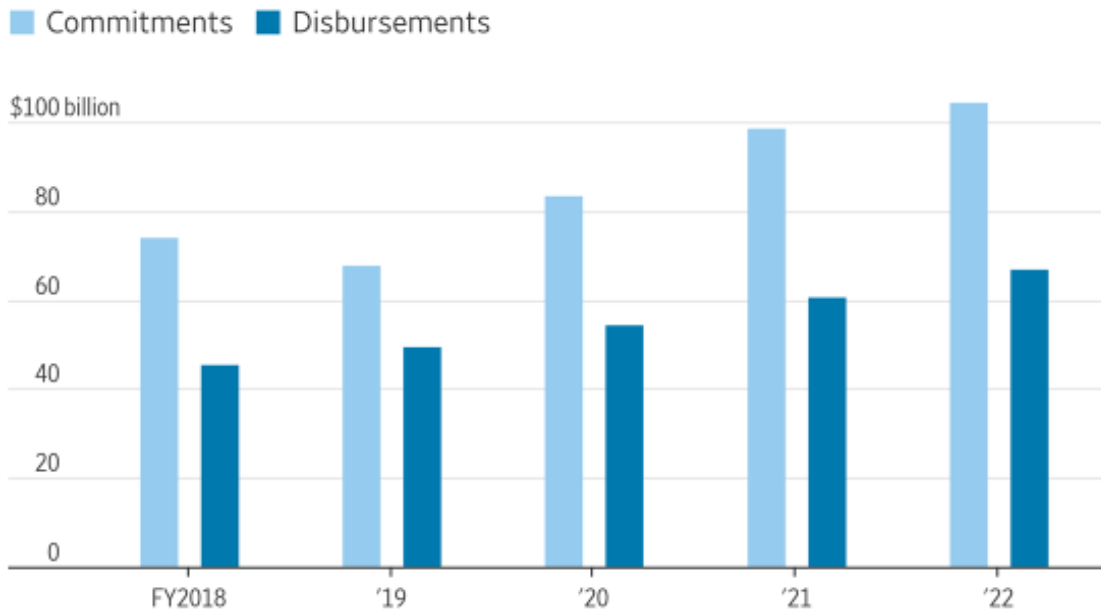


Source: company reports

[World Bank 수장에 인도계 미국인]

- 그는 대출과 기후 변화의 중책을 맡은 기 기관을 받게 됐는데 현재 63세로 마스터카드의 CEO를 역임했고 시티그룹과 펩시사에서도 중역을 맡았었다.

World Bank Group financing for partner countries



Source: World Bank

Bloomberg: Recession Odds Are 'Pretty Darn High' Right Now, Gundlach Says

자신 매니저 Gundlach, "현재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 DoubleLine Capital의 Jeffrey Gundlach는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

다.

- 그가 이처럼 बे어리쉬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로 지난 2022년 3월 이래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과 최근의 신용 위축을 꼽았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White House launches an AI plan, including future policies for US agencies
백악관 AI 대응 방안 밝히다

- 이같은 입장이 나온 것은 챗GPT의 갑작스런 인기와 이로 인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공지능 문제 해결 필요성 때문이다.
- 백악관은 연방 부처들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구매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런 조치는 AI 제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리고 정부 웹사이트, 보안 검문소에서 AI와 상호 작용하는지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
- 한편 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AI 연구와 개발에 1억4천만불 투자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과 은행 사태]

CNN Business: Nearly half of Americans are nervous about their money in the bank, Gallup survey finds
미국인 절반, 은행 예금에 두려움있다

- 갤럽이 오늘 목요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거의 절반이 그들이 은행에 넣은 예금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48%가 우려하고 있고, 특히 19%는 매우 우려, 29%는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인 45%가 우려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PacWest Bank says considering 'all options' after its shares plunge more than 50%
은행PacWest, 주식 50% 이상 하락 후 '모든 선택 검토' 밝혀

-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팩웨스트 은행(PACW)은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 주가가 반토막 난 후 "모든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Treasury Yields May Fall to 2% as Gundlach, Banks Eye Recession**“국채 수익률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 경제 대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미 국채 랠리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략가들은 말한다.
- Mizuho Bank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예상보다 더 큰 경기 침체를 겪을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내년 초까지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일부 지역 은행이 더 압박을 받는 등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당겨지면 수익률이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JPMorgan Asset Management는 내다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와 에너지]**Bloomberg: Shipping Data Show Large Amounts of Oil Are Heading Toward China****엄청난 양의 오일이 중국으로 들어간다**

- 블룸버그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2억 5천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는 1백25척의 초대형 탱커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 이는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며, 4월 화물 적재 데이터에서도 알수 있듯이 중국이 더 많은 화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 Gas Demand to Surge in 2023 as Europe Slumps, IEA Says**국제에너지기구 “올해 중국 가스 수요는 급등, 유럽은 퇴보”**

-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와 중동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유럽 등 타지역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천연가스 세계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 이 기관의 분기별 가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량이 6% 이상 늘어 아시아 전체의 3% 증가를 견인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 반면에 유럽 선진국의 수요는 재생 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커짐에 따라 가스 수요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Car Insurance Rates Are Going Up Again 자동차 보험료, 다시 오르고 있다

- 미국 자동차 보험사인 Allstate와 Progressive는 보험료를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플레이가 자동차 보험 사업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 자동차 부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차량 수리는 작업자 부족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비용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한편 Allstate 올해 1분기에 평균 8.4%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지난해 4분기에 평균 11%, 그 전 분기인 3분기에 평균 14% 인상했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Restaurants, Food Companies Pursue Budget-Minded Consumers as Inflation Persists 요식업 기업들, 알뜰한 소비자를 타겟... 인플레이 지속 때문

- 대형 식품 회사와 체인점은 알뜰한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잡았다. 인플레이가 지속되고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 버거킹과 KFC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저가 상품을 내놓는다. 레스토랑 체인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에 전년 대비 5% 상승하여 2월의 6% 증가보다 하락했다. 이는 2년동안 제일 낮은 상승세다.
- 노동부는 3월 미국 식료품 가격이 1년 전보다 8.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인플레이션이 둔화 됐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가격은 1년 전보다 7.9%, 레스토랑 가격은 8% 올랐다.

U.S. consumer prices, change from one year earlier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Bloomberg: IBM Chief's Message to Remote Workers: 'Your Career Does Suffer'

IBM의 CEO “원격 근무자 승진에 어려움 있다”

- IBM의 CEO는 원격 근무자에게 사무실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격 근무자는 매니저급인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vind Krishna는 IBM 직원 26만명을 통솔하고 있다.
- 일부 기업들의 CEO들은 학습 및 멘토링 기회를 위해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집에서 일할 때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라고 말한다.
- 재택 근무 경향을 조사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이 원격 직원보다 경력 개발 활동에 25%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re Companies Are Giving Mom and Dad Equal Paid Parental Leave

많은 기업들, 유급 육아휴직 제공한다

- 미국의 대기업 중 9%는 성별에 관계 없이 최소 1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951개 기업의 정책을 분석한 JUST Capital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1년 전 6%보다 증가한 것이다.
- 다른 16%의 기업도 부모에게 동등한 휴가를 제공하지만 12주 미만이다. H&R Block와 Cigna Corp와 같은 회사들이 해당 된다.

- 하지만 더 많은 회사들이 불경기 때문에 휴가를 줄이거나 줄일 계획이다. 트위터는 휴가를 20주에서 18주로 줄였다.

Bloomberg 기사

WSJ: Qualcomm Sees No Immediate Smartphone Demand Recovery Qualcomm, “당장 스마트폰 수요 회복 힘들듯”

- 통신 및 데이터 처리 칩을 판매하는 Qualcomm은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했다. 새로운 칩 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Qualcomm은 회계 2분기에 전년 대비 17% 감소한 92억 8천만 불의 매출을 기록했다. 수익은 42% 감소한 17억 불이다.
- 이 회사는 현재 분기에 대해 81억~89억 불 사이의 매출을 예상한다. 이는 분석가의 추정치인 91억 불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올해 단말기 출하량이 5~10% 사이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WSJ 기사

CNN Business: Microsoft opens up its AI-powered Bing to all users MS “Bing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한다”

- MS는 현재 Edge 브라우저에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에게 Bing을 공개하고 있다.
- Bing은 현재 매일 1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크게 증가한 수치다.
- ChatGPT로 구동되는 새 버전의 Bing은 제한된 ‘미리보기’를 선보인 지 약 3개월이 지났다.

CNN Business 기사

WSJ: Nordstrom Is Closing San Francisco Stores as Cities’ Retail Pain Grows

Nordstrom, 샌프란시스코 매장들 폐쇄

- Nordstrom은 35년 동안 운영한 샌프란시스코 매장을 포함한 두 개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의 변화가 폐쇄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 샌프란시스코의 소매 판매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2년동안 7억 8천만 불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
- London Breed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부서장들에게 향후 2년간 최대 13%의 예산 삭감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 부족 및 기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은행권 불안에 '월가 해결사' 블랙록 역할 또 부각"**

미국의 은행권 불안 속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해결사로서 역할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달에 걸친 은행 부문의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월가 청소부'로 불리는 블랙록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이전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붕괴 직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계자들에게 파산에 대비해 연락을 취하는 한편 SVB에 조언하는 등 물밑에서 움직였다고 블룸버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